

大學 入學 基準의 多元化



延世大 總長 朴 煥 植

한국의 대학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어야 할 방안을 자율적으로 타개해야 할 시점에서 서 있는 것이다.

물론 불행히도 그동안 한국의 대학들은 그 역사나 교육적 역량이나 학교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동일한 하나의 규칙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통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50년대만 하더라도 각 대학들은 그 나름대로의 특성에 따라 학교를 운영할 여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적은 운신의 폭마저도 '60년대 이후 제한되기 시작하여 '80년대에는 소위 학원 사태와 겹쳐 통제의 양상은 극에 달했던 것이다. 학생 정원, 학과의 신설, 입학의 기준, 등록금의 책정, 학칙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통제되었던 것이다. 그동안에도 대학의 일은 대학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때마다 대학을 교육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다는 회답이었다. 물론 문제 있는 대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도 그러한 대학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러한 대학을 볼모로 다른 대학을 함께 묶어 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 도대체 언제 문제 없는 대학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면 될 것이요, 다른 대학들은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 뚫어나가게 했어야 했던 것이다. 아니 아직도 보다 과감히 그렇게 해야 한다. 모든 것을 풀어놓아야 한다. 자유가 악의 온상이 될 수도 있지만, 자유의 숨결 속에서만 학문이 꽃필 수 있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담지 못한다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올해도 소위 대학 입시 계절을 만나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정말 한심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신문은 언제 이러한 유치한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대학의 경쟁률이 몇 대 몇이라고 특호 활자로 사회면 톱 기사로 뽑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단 말인가? 각 대학의 학과별 지원자 수를 신문 전면 2장을 할애하여 기사화하고, 합격자 발표가 나면 어느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한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의 누구 누구라면서 인터뷰

기사를 내고, 심지어는 특정 대학에 각 고등학교에서 몇 명 입학했는가를 통계화하는 등 부산을 띤다. 신문이 입시 열기를 부채질해 온 것이다. 이에 질세라 T.V.도 장단을 맞추고 있다. 대학 입시를 가지고 언론이 이렇게 야단스럽게 떠드는 나라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대학 입시는 대학에서 치루는 하나의 행사일 뿐 결코 국가적인 행사는 아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다루어야 할 처음있는 큰 사건도 못된다. 이제 대학 입시를 각 대학에서 제 나름대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조용히 치를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입학의 기준은 모든 대학에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 그것은 시험 성적이다. 시험 성적 하나로 입학 여부가 결정된 것이다. 물론 체력장과 내신 등급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입시의 기준이 한층 더 다원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각 대학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야 한다. 위의 기준들 이외에 추천서, 응시자의 소견서, 고등학교 때의 활동 상황, 특기, 면접, 학교에의 기여, 가정 배경, 동문 자녀 여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점수화되어 입학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시험 일자도 특정한 하루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대학 입시는 완전히 대학의 양식과 책임에 맡겨져야 한다.

우리는 대학의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다. 대학교육 100년의 역사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대학교육을 질적으로 관리해야 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정부가 사립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을 바에는 모든 것을 대학에 일임해서 스스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학도 이제 자활의 길을 찾아내어야 한다. 그 길은 대학이 자기 책임하에서 대학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의 발휘인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결함을 정부에 핑계될 단계가 아닌 것이다. 대학이 그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의사 결정을 하고, 사회를 이해시켜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제는 사회도 학생도 의식 전환을 해야 한다. 자율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자율하는 차원으로 옮겨와야 하는 것이다. 자율을 요구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율을 거부한다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의 자율은 대학을 학문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함이고, 대학교육을 질적으로 심화시키기 위함이었다. 한마디로 우리는 대학을 대학답게 하기 위해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 대학인의 과제는 정부로부터 자율을 획득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율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사회를 지금까지의 타성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할 것인가, 학생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언론이 대학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2000년대로 진입하는 한국의 대학들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대학과 함께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사회를 계도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대학은 이 일을 위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